

“채권 매도 폭탄에 맞아서 당해요”

미 대선 이후 금리 급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진정세
석유감산합의로 상승할 듯
“올 하반기 기점 채권금리
상승 추세 시작될 것 전망”

“(채권을) 매도할 타이밍도 모르고 맞아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많이 힘들죠.”
한 증권사에서 채권 운용을 담당하는 A씨는 1일 최근 채권 시장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푸념했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매도 폭탄’이 이어져 큰 손실을 보게 됐다

했는데 다음날 더 오르니까 손절을 하고 다음날 다시 또 샀다가 손실을 내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금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냈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거래)업이나 RP(환매조건부증권)업 등 채권 운용 규모가 큰 부서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증권사 프랍업 직원 B씨는 “증권사는 월별 손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을 내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로스컷(손절매)에 걸려 다 팔게 되면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B씨는 “로스컷에 걸려 매매 자체를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며 “(대규모 손실을 내고) 누가 잘린 다더라거나 하는 소리들도 심심찮게 들린다”고 귀띔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업계는 수익 창출을 위해 채권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글로벌 금리도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국내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위기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포감이 확산되자 채권형 펀드 환매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채권형펀드에서는 16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됐다. 자금 유출 규는 1조 3400억원에 달한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C씨는 “2008년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관성적으로 통(매수)장에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라며 “채권쪽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씨는 “증권사 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지만 운용사 입장에서 금리 방향성이 확 바뀌면 기관이 채권 자금 집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직후부터 지난주 말까지 구간별로 40bp 이상 급등했다. 3년물 금리는 1.402에서 1.811로, 3년물은 1.789에서 2.247%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채권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내놓자 시장은 이번 주부터 진정세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전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다시 급격히 위축되는 분위

위다.
증권사 채권영업팀 직원 D씨는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방법이 없다. 사자는 사람만 많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중개 자체가 20~30% 줄었다”며 “지금 하우스(팁)는 ‘절간’ 같은 분위기”라고 묘사했다.
D씨는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이번주에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예상과 달리 OPEC이 감산에 합의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매수세가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OPEC의 감산 합의가 유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물가가 올라간다면 채권금리는 상승하게 된다”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채권금리 하락 추세는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원은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 부각으로 금리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

“누구나 대출 · 고수익 보장” ... 불법 광고 주의보

금감원, 유형 · 유의사항 안내... ‘파인’ · 금감원 · 한국이존 검색 · 상담 바람직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 과장 광고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누구나 대출’, ‘즉시 · 당일대출’ 등을 내거는 광고는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구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연라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채권추심을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금융소비

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존에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 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공 · 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사채업자 광고다. 휴대폰을 넘겨주면 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해 명의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투자자는 원금보장과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 채권추심업체 등이 사용하는 광고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카드대금 및 연체 대납’은 카드갑업자 등이 내거는 광고이며,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한다는 광고는 금융 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다.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32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뉴스

성인 47% “동전 있어도 안 써”

동전을 갖고 있어도 사용 않는 성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동전 사용 행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1일 한은이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현금 결제 후 잔돈으로 받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용한다는 의견은 53.0%였다. 응답자의 2.7%는 기부나 입금에 동전을 이용한다고 했다.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지 불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62.7%로 가장 컸다.
동전 없는 사회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0.8%로 조사됐다.
현금을 이용하는 장소는 노점상(29.3%), 편의점(24.4%), 재래시장(22.2%) 순이었다.
현금 결제 이유에 대한 응답은 ‘소액 결제’가 57.2%로 가장 많았다.
잔돈 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 선불카드 충전(32.5%), 포인트 적립(20.0%) 등이 선호됐다. 다만 응답자의 87.4%가 지폐를 제외한 동전만 적립한다고 답했다. /뉴스



쉐보레 ‘메리 웨비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파격 할인 · 전시장 방문 이벤트

쉐보레(Chevrolet)가 12월 한 달간 ‘메리 웨비 크리스마스’를 시행, 쉐보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파격 할인을 제공하고 대규모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올 한 해 고객 성원에 보답한다.
쉐보레는 이달에 최대 325만원의 현금할인 및 쉐보레 콤포 할부 프로그램 등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 콤포 할부를 이용해 스파크 구입시 100만원의 현금할인과 최대 4.9% 60개월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할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최신형 닷컴 감치냉장고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생산월별 최대 120만원의 할인해 주는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콤포 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더불어 ‘쉐보레 페스타’를 시행, 2016년형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등 3개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취득세 7%와 자동차세 1년치를 할인해 준다.
이 조건을 활용해 크루즈 구입시 최대 215만원, 트랙스 최대 206만원, 아베오 최대 150만원 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12월 한 달간 올 뉴 말리부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무상교환 및 10만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조선=문정곤 기자

네이버 웹브라우저 ‘웨일’, 구글 ‘크롬’에 도전장

오픈 태스킹 · 외국어 번역 특징
네이버가 자체 웹브라우저 ‘웨일’을 1일 선보이며 구글 ‘크롬’에 도전장을 던졌다.
인터넷을 시작할 때 관문인 웹브라우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와 구글 ‘크롬’의 양강 구도로 되어 있다. 크롬이 IE 점유율을 매섭게 잠식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구글에 출사표를 냈다.
네이버는 5년 간 개발해 온 ‘웨일’의 베타 버전을 이날 선보였다. 네이버의 자체 웹 브라우저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반영했다.
웨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창(탭)을 띄우지 않고, 하나의 창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태스킹’ 기능이다.
웨일은 브라우저 속 특정 단어를 드래그하면 검색 결과가 팝업으로 뜨는 ‘픽서치’ 기능을 제공한다. 음성통역 서비스 ‘파파고’에 적용된 인공지능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